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독서치료 경험 분석

An Analysis on Bibliotherapy Experiences of Bibliotherapists in Library

임 성 관(Seong-Gwan Lim)*

〈목 차〉

I. 서론	2. 치료과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I. 독서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 분석
2. 연구문제 및 방법	1. 인터뷰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3. 선행연구	2. 인터뷰 실시
II. 독서치료사와 치료과정	3. 연구 결과
1. 독서치료사	IV.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독서치료사들의 경험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독서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12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6명씩 2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정하여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독서치료사로서 치료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7개의 주제, 26개의 범주, 8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어려움을 관찰하고 개선점을 마련함으로써 각 치료 프로그램들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서관과 독서치료사 모두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키워드: 도서관, 독서치료사, 독서치료 경험, 독서치료 프로그램, 도서관 독서치료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focused on knowing what bibliotherapists experience while they are in a session with their clients in library settings.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the main research tool or method used for this study.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12 bibliotherapist respondents specializing in librar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6 and each group was interviewed for approximately 2 to 3 hours. The interview employed a question asking methodology modified from that presented and/or originally used by Kruger and Casey(2000). The interview utilized open ended questions in the order of starting, introduction, main, and ending questions. Analyses of the interviews were based on methods presented by Morgan and Scannell(1998).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experiences through therapy sessions consisted of 7 different themes, 26 specific categories, and 84 unique concep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observe the problems bibliotherapist have or may encounter in library settings, provide feedback to make each session better, and as a result, help both the library and bibliotherapist during the bibliotherapy process.

Keywords: Library, Bibliotherapist, Bibliotherapy experiences, Bibliotherapy program, Bibliotherapy in library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초빙교수(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 2016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417-436,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41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다.¹⁾ 이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여러 상담 및 치료 기관,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도서관은 독서치료 분야를 가장 활발하게 도입해 접목한 기관이다. 성인을 위한 이론 과정은 물론이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및 노인, 장애인 등 여러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더불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바탕으로 독서치료용 자료를 모아 놓은 서가를 별치하거나, 성남중앙도서관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서관이 이용자 서비스의 한 축으로 독서치료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아가 향후에도 독서치료는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런 현상에 대해 과연 도서관은 치료를 위한 곳이 맞는지 그 설립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록 처음부터 설립 및 운영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대 및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를 수용 및 적용하는 것은 기관이 유지 및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은 독서치료라는 분야를 도입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도서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독서치료 서비스가 얼마나 전문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발달적 독서치료(developmental bibliotherapy)²⁾의 목적인 성장 및 발달, 적응을 돕고, 나아가 어떤 문제를 예방해 준다는 목표를 갖고 실행되는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자들께서 도서관 내에서 운영한 특정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통해 일정 부분 밝혀낸 바가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독서치료사

1) 이 과정은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1년 과정으로 운영이 되었다. 당시 주 강사를 맡았던 김현희 선생님은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에 소속된 독서치료 연구회 회원이었으며, 과정이 끝난 2003년에는 연구회 회원들과 1기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한국독서치료학회를 발족하였다.

2) 독서치료는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 정도에 따라 발달적 독서치료(developmental bibliotherapy)와 임상적 독서치료(clinical bibliotherapy)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후자는 장애인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아닌 전문 치료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달적 독서치료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들이 자신의 치료과정 경험, 나아가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전문 치료 센터나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 밝힌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 독서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서치료사의 어려움을 밝혀냄으로써 도서관에서 실행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아직까지 도서관은 치료(therapy)를 위한 곳은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도서관의 전문 서비스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서들에게도 관련 역량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독서치료사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도서관과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치료과정을 살펴보고, 도서관이 치료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서관 및 치료사 각각에게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분석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독서치료사와 치료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 선택한 Krueger와 Casey(2000)의 질문 방식,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도 정리하였다.

둘째, 질문에 따른 답변에 따라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셋째, 정리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치료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측면들을 제안하였다.

3. 선행연구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아직 독서치료사 및 독서치료 과정을 중심 주제로 선정해 실행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만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논문의 대부분은 연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 프로그램 목표 수립, 치료 대상 선정, 자료 및 관련 활동 선정, 치료 실시, 수정 및 보완,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전체 혹은 일부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사를 주제로 한 논문과 비록 독서치료 분야는 아니지만 치료과정 경험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임성관(2013)은 ‘독서치료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해 가는 치료사들의 동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사들이 독서치료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해 가는 동기와 그 과정 속에서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독서치료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었고 치료 현장에서 5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치료사들로 했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한 뒤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치료사들은 1)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분야를 선택했고, 2)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반에는 혼란을 경험했으나 과정 속에서 독서의 힘을 확신하였으며, 3) 졸업 후(수료 후, 자격증 취득 후) 여러 다른 요인들로 인해 두 번째 회의감을 경험하지만 노력을 통해 극복했다고 한다. 또한 4) 독서의 힘에 대한 믿음과 개인적 심리적 보상에 따라 독서치료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4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임성관(2008)은 ‘집단독서치료에서 치료사와 보조치료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집단독서치료 환경에서 요청되는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독서치료 프로그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가족치료 분야에서는 김유순(2004)이 ‘가족치료 과정연구로서의 가족치료 내담자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가족치료 내담자의 가족치료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기술지 면접법을 활용한 가족치료 과정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류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치료가 도움이 된 방식에 대해서 세션 내에서는 대화 촉진, 경청, 공감, 신뢰관계 형성, 칭찬, 새로운 관점, 문제 명료화-자기 인식 증가, 이전에 생각만 했던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등의 경험을 들었고, 세션 밖에서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세션 내의 치료적 대화를 세션 밖에서도 기억하면서 해결책을 꾸준히 찾게 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미술치료 분야에서는 장서연과 최선남(2014)이 ‘아동 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하는 아동미술치료사들의 경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동미술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12명의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숙희와 최선남(2015)은 ‘청소년 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를 통해, 청소년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과정 중 겪게 되는 경험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공공기관, 사설 상담센터에서 청소년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경력 만 3~10년차 12명의 미술치료사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 정리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 내용
독서치료	임성관 (2013)	독서치료사들이 독서치료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해 가는 동기와 그 과정 속에서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독서치료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었고 치료 현장에서 5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치료사들로 했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한 뒤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독서치료	임성관 (2008)	집단독서치료 환경에서 요청되는 치료사 및 보조치료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독서치료 프로그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치료	김유순 (2004)	가족치료 내담자의 가족치료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기술지 면접법을 활용한 가족치료 과정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류분석 하였다.
미술치료	장서연·최선남 (2014)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하는 아동미술치료사들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동미술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12명의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술치료	윤숙화·최선남 (2015)	청소년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과정 중 겪게 되는 경험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공공기관, 사설 상담센터에서 청소년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경력 만 3~10년차 12명의 미술치료사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뒤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II. 독서치료사와 치료과정

1. 독서치료사

한국독서치료학회의 자격규정 제2장 ‘자격’ 항목의 제4조 ‘자격’에 의하면, ‘독서심리전문상담사와 독서심리전문상담전문가 그리고 독서심리전문상담수련감독은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인내심, 기지, 융통성, 현명한 판단력, 상담의 한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고, 독서치료 자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평생 학습을 할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³⁾

또한 한국직업사전에 의하면 독서치료사를 ‘사회적, 정서적 또는 개인적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을 독서 자료를 매개체로 심리치료를 수행한다.’라고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3) 독서치료 분야는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독서치료사가 아닌 독서심리상담사 혹은 독서심리전문상담사라는 명칭으로 발급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문상담전문가 및 전문상담수련감독은 자격의 등급에 대한 명칭이다.

이어서 도서관에서 주로 실행되는 발달적 독서치료는 집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단독서치료의 역할에서 치료사의 정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이형득 등(2002, 200)은 집단독서치료의 역할을 ‘여러 변인에 의해 매우 다양하지만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집단 활동의 시작을 돕기, 집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단 규준의 발달을 돕기, 집단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집단과정의 활력소가 되도록 돕기, 바람직한 행동 모델을 제공하기, 집단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집단구성원을 심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마지막으로 집단의 종결을 돕기 등’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독서치료사는 개인 혹은 집단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의 시작을 돕고 방향을 제시하며, 규준의 발달을 돕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치료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나아가 치료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행동 모델을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그들을 심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종결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치료과정

과정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한 단계씩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료과정은 치료사들이 특정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독서치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실행이 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은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독서치료의 과정이다.

Hynes와 Hynes-Berry(1994)는 독서치료 과정을 4단계로 보았다. 인식론적 입장에서 자료에 내포된 것을 참여자가 자각하는 단계인 ‘인식(recognition)’, 상상과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는 활동인 ‘고찰(examination)’, 고찰의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대상이나 경험의 두 가지 인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 대조하는 ‘병치(juxtaposition)’, 작품을 통해 위 3단계를 거쳐 ‘자기 적용(application)’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Watson(1994)은 독서치료의 과정을 문자단계, 추론단계, 평가단계, 창조단계의 4단계로 제안하였다. ‘문자단계’는 책 본문에 드러난 명백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치료사가 질문을 하지만 토의는 하지 않는다. ‘추론단계’에서는 치료사의 질문은 책 본문에 함축된 명백한 정보에 초점을 두지만, 똑같은 단서들도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책 내용과 읽는 사람의 생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책 내용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읽는 사람의 지식과 가치관에 기초를 둔 판단에 의해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 ‘창조단계’에서는 ‘만약 ~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형식으로 책을 지은 작가의 사고를 능가하는 즉, 책 내용을 변화시키는 질문을 사용하고 이러한 창조적인 질문에 답변

할 때 읽는 사람이 역할을 바꾸어 직접 작가가 되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Doll과 Doll(1997)은 독서치료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독서치료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 전반에 관하여 참여자와 의논하며, 참여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돕고 참여자의 독서연령을 고려하는 ‘읽힐 자료의 선택 단계’, 자료를 읽어주거나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료의 소개 단계’, 동일시의 원리·카타르시스의 원리·통찰의 원리가 일어나도록 하여 ‘이해를 돕는 단계’, 참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개입하고 개인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해 가는 과정인 ‘후속 조치와 평가 단계’를 거친다.

김인혜(2003)는 Doll과 Doll이 제시한 5단계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1) 준비 단계 : 치료사가 먼저 신뢰관계 즉 공감대(rapport)를 형성하고 상담자와 함께 그가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화하며, 그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진단한다. 이 단계에서의 주목표는 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표준화된 검사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읽힐 자료의 선택 단계 : 독서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책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관심, 독해력 수준에 맞는 양질의 책을 선정하되 앞 단계에서 밝혀진 참여자가 지닌 문제의 성격에 적합한 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독서치료는 도서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소설, 비소설, 전기, 자서전 등)를 포함하여 영화,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시, 잡지, 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책을 소개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책을 소개한다. 이때 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건강하지 않은 감정적 반응을 포착하고 조절한다. 너무 쉬운 책이나 너무 어려운 책은 독서의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책을 좋아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쉽게 독서치료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기부여 과정이 중요하다.

4) 이해를 돕는 단계 : 독서치료의 핵심적인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치료사는 참여자가 책을 잘 읽도록 도우며 책과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독서치료의 세 가지 원리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후속 조치와 평가 단계 : 위 단계를 거치며 깨달은 바를 실제 생활과 행동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단계이다. 인터뷰, 그림 그리기, 독후감 쓰기, 역할극, 사회 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읽은 내용이 더 내면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치료과정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후속 조치와 평가 단계까지 포함이 된다. 따라서 치료과정에 대한 연구는 치료사와 치료 대상자(내담자 혹은 참여자)간의 1차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치료 환경 등 2차적 요소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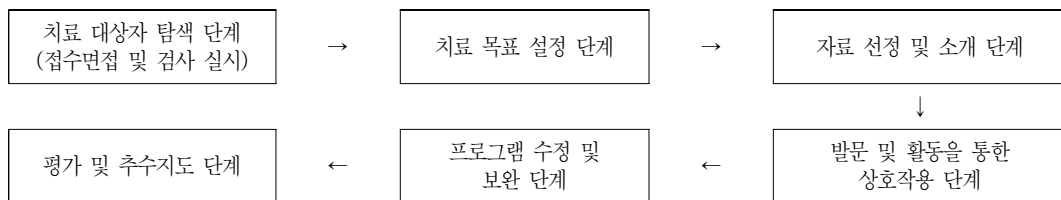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이상과 같이 각 연구자들이 제안한 독서치료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독서치료의 과정

Hynes와 Hynes-Berry	인식 → 고찰 → 병치 → 자기 적용
Watson	문자단계 → 추론단계 → 평가단계 → 창조단계
Doll과 Doll	준비 단계 → 읽힐 자료의 선택 단계 → 자료의 소개 단계 → 이해를 돕는 단계 → 후속 조치와 평가 단계

이어서 다음의 <그림 1>은 <표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정리한 독서치료의 과정이다.



<그림 1> 독서치료의 과정

Ⅲ. 독서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 분석

1. 인터뷰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인터뷰를 실시하기 일주일 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질문을 미리 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 발송을 하였다. 모든 질문은 참여자들이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은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인터뷰를 진행하는 소요시간이 2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연구자가 구성해 참여자들에게 미리 보낸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수정해 도입 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 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주요 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의 네 종류로 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질문 과정	항목	적용	질문 문항
도입 질문 (opening questions)	독서치료에 대한 만족도	연구자 및 참여자들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인터뷰 주제와 관련된 비교적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독서치료사로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소개 질문 (introductory questions)	도서관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인터뷰 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독서치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요 질문 (key questions)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하면서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도서관 독서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마무리 질문 (ending questions)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자의 경험에 대해 말한 내용을 정리하고, 혹시 더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나눈다.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인터뷰 실시

가. 사전 준비

본격적인 인터뷰 실시를 위해 연구자는 모임 장소에 일찍 도착해 참여자들이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하고, 서로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인터뷰 시작 전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치료사 경력,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주요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다. 〈표 4〉와 〈표 5〉는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인적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주요 인적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전공	치료사 경력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험
1	남	43세	상담심리 박사 졸업	9년	22회
2	남	38세	상담심리 박사 수료	8년	20회
3	여	55세	사회복지 박사 수료	8년	20회
4	여	47세	상담심리 박사 재학	7년	18회
5	여	38세	경영학 석사 졸업	5년	10회
6	여	46세	교육학 석사 졸업	6년	10회

〈표 5〉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주요 인적 사항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전공	치료사 경력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험
7	여	44세	상담심리 석사 재학	6년	14회
8	여	46세	상담심리 석사 재학	7년	16회
9	여	47세	상담심리 석사 재학	6년	12회
10	여	44세	상담심리 석사 재학	7년	10회
11	남	32세	상담학 석사 수료	5년	10회
12	여	52세	상담학 석사 수료	5년	10회

1차 및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인적 사항을 정리 및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3명, 여성이 9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령은 최소 32세부터 최대 55세까지이며 평균 44.3세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 및 전공을 살펴보면 모두 석사 재학 이상으로, 상담학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학, 경영학, 교육학이 각 1명씩이었다. 또한 치료사로서의 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총 경력을 다 합하면 79년이며, 이를 다시 나누면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험은 최소 10회부터 최대 22회까지로 나타났다. 이때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4회 또는 8회 등의 단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상하반기를 합쳐 16회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경우도 있었다.

나. 연구 목적 소개

연구자는 토의의 사회자로서 진행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인터뷰 및 연구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도 연구의 목적을 알아야 적정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다. 인터뷰 실시

비록 연구를 위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가능하면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녹음을 했고, 연계 질문 및 내용 정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 내용들은 별도로 메모하였다. 질문은 네 단계의 과정에 맞추어 미리 만들어 두었던 일곱 개를 중심으로 활용했으며, 2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하였다. 인터뷰는 전체 참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먼저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차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는 2016년 5월 3일 화요일 저녁 7~9시, 2차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는 2016년 5월 10일 저녁 7~9시에 걸쳐 A시에 소재하고 있는 H독서치료연구소에서 실시가 되었다.

라. 자료 분석

Krueger와 Casey(2000)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를 ‘체계적(systematic), 입증 가능한(verifiable), 순차적인(sequential), 계속 이어지는(continuous)’으로 설명하고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중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중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즉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마. 연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의 중립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방법으로 2인의 감수자를 선정하였다. <표 6>은 연구 감수자들의 주요 인적 사항이다.

<표 6> 연구 감수자 주요 인적 사항

연구 감수자	성별	연령	학력/전공	치료사 경력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험
1	여	48세	상담심리 박사 졸업	15년	32회
2	여	52세	상담심리 박사 수료	21년	40회

3. 연구 결과

가. 도서관 독서치료사들의 문항별 답변 내용 분석

문항 1) 도입 질문 : 독서치료사로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사들은 치료 작업 시 여러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책과 독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읽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치료사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적 성향이 강한 저에게는 가장 잘 맞는 치료 이론이기도 합니다. (연구 참여자 1, 남/43세, 치료사 경력 9년)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제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이런 저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독서심리상담사 과정을 공부했으나, 기회가 되면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5, 여/38세, 치료사 경력 5년)

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제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상담 치료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 및 집단치료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론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 참여자 9, 여/47세, 치료사 경력 6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사들은 독서치료를 통해 대부분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치료사로서의 경력과 현장 경험에 따라 부족함을 느끼는 치료사도 있었다.

문항 2) 소개 질문 : ‘도서관 독서치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미흡’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사실 완벽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도서관은 아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워낙 강의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이론을 다루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연구 참여자 4, 여/47세, 치료사 경력 7년)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시설이나 담당 사서(혹은 평생교육사, 혹은 담당 직원)에 따라 여건이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조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7, 여/44세, 치료사 경력 6년)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0년 겨우 넘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시작된 것은 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점차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11, 남/32세, 치료사 경력 5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사들은 도서관 독서치료를 대해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으면서 동시에 발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었다.

문항 3) 주요 질문 :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료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곳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프리랜서 신분으

로 치료를 청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그곳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2, 남/38세, 치료사 경력 8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서관에서도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온 경우도 있고,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서를 제출해서 선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3, 여/55세, 치료사 경력 8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의뢰를 받고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제가 속한 기관에서 연계가 된 것입니다. 도서관은 자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독서치료와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12, 여/52세, 치료사 경력 5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사들은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도서관에서 의뢰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먼저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한 뒤 적정 강사를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혹은 개인 독서치료사에게 직접 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 4) 주요 질문 :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20명 이상 모집이 되지 않으면 폐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일반 강좌들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6, 여/46세, 치료사 경력 6년)

참여자들이 아예 탈락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잦은 지각을 하는 경우, 그리고 프로그램 중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는 것 등이 힘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을 때가 많습니다. (연구 참여자 8, 여/46세, 치료사 경력 7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사들은 도서관 담당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경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에서 힘들다고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5) 주요 질문 : 그 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솔직히 몇몇 사람들이 탈락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 같이 웃음) 그리고 담당자에게 다음에는 인원을 줄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최대 15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 6, 여/46세, 치료사 경력 6년)

참여자들이 지각을 하는 것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문에 '프로그램 중이니 문을 열어 보거나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8, 여/46세, 치료사 경력 7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사들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 도서관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발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 6) 주요 질문 : 도서관 독서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도서관이라는 곳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서 실행되는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 독서치료사라고 한다면 우선 그곳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11, 남/32세, 치료사 경력 5년)

도서관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잘 모른 채 계획을 하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12, 여/52세, 치료사 경력 5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사들은 도서관 독서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 도서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도서관 담당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독서치료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항 7) 마무리 질문 :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제가 갔던 도서관 내에는 독서치료 상담실이 있었습니

다. 상담실은 강좌 및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과 개인 독서치료 상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전문 상담치료 센터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라면 도서관 내에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구 참여자 3, 여/55세, 치료사 경력 8년)

우선 도서관 직원들 가운데 독서치료를 전담해서 관리 및 운영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이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6, 여/46세, 치료사 경력 6년)

이상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독서치료사들은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효과 증진을 위해 도서관 내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 감수자들의 문항별 답변 내용 분석에 대한 총평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치료사로서의 경력을 5년 이상 갖고 있고,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최소 10회 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답변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연구 감수자 2, 여/52세, 치료사 경력 21년)

이어서 다음의 <표 7>은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에 대해 통합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도서관 독서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에 대한 통합적 분석

개념	범주	주제
문항 1) 도입 질문 : 독서치료사로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인지적 성향이 강한 저에게는 가장 잘 맞는 치료 이론이자 방법이기에 때문에 만족하고 있음	치료사 자신에게 맞는 방법임	독서치료사로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음
내 자신부터 치료되는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독서치료사로서 만족하고 있음		
내담자 및 참여자들이 도움을 받는 면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음	치료 대상자들의 효과에 대한 만족감을 확인하고 있음	
사후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보호자들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음	치료사 스스로의 역량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독서치료 자체에는 만족하고 있음	
이론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운영을 매끄럽게 해나가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독서치료를 통한 만남 자체에 만족하고 있음		
발문이나 활동을 이끌어 내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만족하고 있음		
항상 자료 선정에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적정 자료를 찾았을 때의 희열과 함께 독서치료 전반에 만족하고 있음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개념	범주	주제
개인 및 집단치료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론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됨	치료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	
일반 상담은 치료 대상자들의 저항을 많이 받는데, 독서치료는 그 부분을 줄여주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음		
자료 선정 및 발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됨		
점차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적용 분야가 많아질 것 같아 관련 분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독서치료사로서의 활동에 만족함		
문항 2) 소개 질문 : ‘도서관 독서치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도서관이라는 환경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함	도서관이라는 환경 그 자체와 부정, 양가, 긍정 인식을 모두 갖고 있음
‘떨었다’라는 단어가 생각남		
‘미흡’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글썸’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시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평생학습실’이라는 단어가 생각남		
‘많은 인원’이 생각남	도서관이라는 환경 자체와 치료사로서 느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림	
‘긴장감’이 생각남		
문항 3) 주요 질문 :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음	도서관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음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도서관 측으로부터 개인 치료사에게 직접 의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는 경우, 더불어 강사를 직접 선발하는 방법을 통해 운영됨
그곳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게 되었음		
도서관 담당자로부터 직업 연락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까지 하게 되었음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음		
요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음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음		
요청을 해 온 경우도 있지만,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서를 제출해서 선발된 경우도 있음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선발이 되었음		
이미 다른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음		
독서 관련 수업을 하고 있던 중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운영 의뢰를 받았음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연결을 해주었음. 도서관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들었음	독서치료사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연계가 되었음	
도서관에서 의뢰를 받고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연계가 된 것임		
문항 4) 주요 질문 :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 구성	너무 많은 인원의 모집	치료사 자신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도서관 환경의 한계
너무 많은 인원의 모집		
프로그램실이 넓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함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너무 많은 인원을 모집		
너무 많은 인원의 모집		
너무 많은 인원의 모집		

프로그램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음습한 기운	도서관 및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의 한계	
다른 이용자가 갑자기 프로그램실 문을 여는 등 환경에 대한 통제가 안 됨		
기자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없는 여건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잦은 지각		
치료사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재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미비	치료사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족	
문항 5) 주요 질문 : 그 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담당자에게 건의	도서관 담당자에게 직접 건의	도서관 담당자에게 건의하거나 직접 노력함
사서에게 건의		
평생교육사에게 건의		
도서관 선생님에게 건의		
담당자에게 건의		
담당자에게 건의		
담당자에게 건의		
담당자에게 건의		
담당자에게 건의		
탈락자가 발생하기를 바람	수동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탈락을 기대	
문 밖에 문구를 적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	적극적으로 방해 환경을 개선	
창문 등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곳을 차단		
문항 6) 주요 질문 : 도서관 독서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해	도서관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서관 환경 및 특성, 목적을 이해하고 도서관 담당자 및 치료 참여자들을 설득하여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해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해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해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해		
도서관 환경에 대한 이해		
도서관 특성에 대한 이해		
도서관 특성에 대한 이해		
도서관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해		
도서관의 시설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		
도서관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	도서관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도서관 담당자와 참여자들에게 독서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역량	도서관 담당자 및 치료 참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	
문항 7) 마무리 질문 :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서치료 상담실 마련	독서치료만을 위한 공간 마련	도서관이 독서치료 전문 기관이라는 인식 정립을 위한 노력
독서치료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독서치료 전문 인력 배치	독서치료 전문 인력 배치	
사서 혹은 직원, 외부 전문가가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		
도서관 내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증진	도서관 및 사서 직원들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증진	
담당 직원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증진		
외부 독서치료 전문 기관과 연계	외부 전문가 및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 감독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및 치료사에 대한 수퍼비전 실시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방안 모색	
도서관 독서치료 목록 개발		
도서관 독서치료 사례 발굴		

<표 6>은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정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질문하고 정리한 답변 내용들을,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도서관 독서치료사로서 치료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7개의 주제, 26개의 범주, 8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도서관이 독서치료를 위한 곳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다. 하지만 독서치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 도서관 내에서 가장 활발히 접목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독서치료 프로그램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독서치료사들을 모아 그 경험을 알아보고, 도서관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독서치료사들 대부분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도서관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독서치료 전문가이자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서관의 독서치료 환경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Krueger와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정하여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때 7개의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녹음과 전사를 통해 정리한 답변 내용들은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도서관 독서치료사로서 치료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7개의 주제, 26개의 범주, 84개의 개념을 도출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7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독서치료사들은 독서치료사로서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독서치료사들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써 도서관이라는 환경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양가적인 인식, 긍정적인 인식을 모두 갖고 있었다.

셋째, 도서관 독서치료사들이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유는 도서관 측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았거나,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독서치료 전문 기관으로 의뢰가 되어 파견을 나간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나아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응모해 선발 과정을 거친 경우도 있었다.

넷째, 도서관 독서치료사들은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료사 자신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도서관 환경의 한계를 느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섯째, 하지만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도서관 담당자에게 건의하거나 직접 노력을 하면서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여섯째, 나아가 도서관 독서치료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환경 및 특성, 설립 및 운영 목적을 이해하고, 도서관 담당자 및 치료 참여자들을 설득하여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도서관 독서치료를 위한 목록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례를 발굴하며,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도서관이 독서치료 전문 기관이라는 인식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다.

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침묵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는 고대 그리스 테베의 도서관 입구에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찾아와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도움을 받는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은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독서치료는 도서관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학교 등의 기관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적정 독서목록을 개발하고 서가를 별치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들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독서치료와 관련된 대내외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유순. 2004. 가족치료 과정연구로서의 가족치료 내담자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27-52.
- 김인례. 2005. 『기독교인의 우울증 치료방안으로서의 독서치료 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형득 외 공저. 2002. 『집단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임성관. 2013. 독서치료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해 가는 치료사들의 동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디지털도서관』, 2013년 가을호: 38-52.
- 임성관. 2008. 집단독서치료에서 치료사와 보조치료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연구』, 제8호: 31-51.
- 장서연, 최선남. 2014. 아동 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

- 술치료연구』, 21(4): 623-634.
- 장서연, 최선남. 2015. 청소년 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미술치료연구』, 22(2): 409-432.
- 한국직업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25496&cid=42117&categoryId=42117>> [인용 2015. 5. 19].
- Doll, B. & Doll, C.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Inc.
- Hynes, A. M. and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 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Pnisof, W. M. 1988. 『Strategies for the study of family therapy process』. In L. C.
- Watson, D. C. 1994. *The effects of three bibliotherapy techniques on fourth graders' self esteem, reading achievement, and attitudes toward rea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ang, Seo-Yeon & Choi, Sun-Nam. 2014.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ild Art Therapists: Based on a Focus Group Interview".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1(4): 623-634.
- Kim, In-Rye. 2004. *A Study of bibliotherapy for the depression of christian*.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 Kim, Yu-Soon. 2004. "Family therapy process research: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experiences of family therapy cli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2(2): 27-52.
- Lim, Seong-Gwan. 2013. "A Phenomenological Research about Bibliotherapists' Motivation for Choosing and Maintaining the Path of Bibliotherapist". *Digital Library*, 2013 Autumn Issue: 38-52.
- Lim, Seong-Gwan. 2008. "A Study on Therapist's Role in Group Bibliotherapy".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8: 31-51.
- Youn, Sook-Hee & Choi, Sun-Nam. 2015.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Art Therapists Specializing in Adolescents: Based on a Focus Group Interview".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2(2): 409-432.